

# ‘종신집권’ 노리는 푸틴, 개헌안 추진할 듯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8·사진)이 헌법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총리 및 각료 지명권을 의회로 넘기고, 의회가 지명하는 총리 및 각료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없앤 개헌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3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연임으로 줄일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자격 요건 중 러시아 거주 연한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늘릴 뜻을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석유 재벌 출신의 정적(政敵)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의 대선 출마를 차단하고 자신 외에는 장기 집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푸틴의 집권 연장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회의장에 올라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개헌안대로 의회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의원을 대거 입성시켜 대통령을 능가하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둘째, 2008년 심복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에 앉히고 자신은 실세 총리로 군림했던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4년 후 다시 총리에 오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힌 후 자신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위원회 수장이 되어 사실상 대통령직을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메드베데프 총리의 후임자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푸틴의 의도대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알렉세이 나발니 전 러시아진보당 대표,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총리 등 야권 지도자는 “푸틴의 종신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헌은 하원에 해당하는 450석의 국가 дума, 170석인 상원 모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한때 70% 내외였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 온두라스 캐러밴 1천 명 미국행 시작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행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천 명 가까운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전날 온두라스 북부 산페드로 술라 마을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온두라스 국기를 흔들거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번 캐러밴은 2018년 10월에 최초로 수천 명의 군중이 캐러밴을 조직해서 이동하면서 세계적인 뉴스의 초점이 된 이후 13번째 대열이다. 무리를 지어 도보나 히치하이커로 북상하는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은 지난 2018년 절정을 이뤘다.

이민의 대부분은 지독한 가난과 최근 증가하는 범죄조직의 폭력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미국을 향한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 북상을 막으면서 지난해엔 대부분의 캐러밴이 미국 국경에 당도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삼삼오오 흩어져 미국 국경에 도달한다고 해도 미국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과테말라와의 협약에 따라 온두라스 이민자들을 과테말라로 대신 보내기 시작했다. 중미 나머지 국가들 과도 비슷한 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차단했다.

이처럼 미국 이민 실현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본국에서 빈곤과 폭력 등에 시달리는 이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행 실패만이 유일한 리스크는 아니다. 멕시코 경찰에 의해 캐러밴이 해산되고 뿔뿔이 흩어진 이민자들이 자체적으로 북상을 시도하다가 범죄 조직에 희생될 수도 있다.

2017년 현재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온두라스 출신의 히스패닉 인구는 94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해 히스패닉 인구 전체의 2%를 차지한다고 미국 인구통계국의 퓨리서치센터는 밝히고 있다.

# 해리왕자 부부 ‘왕실 독립’ 선언, 캐나다로 불뚱

영국에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의 ‘왕실 독립’ 선언에 캐나다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캐나다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권, 공식 칭호, 경호비 등을 놓고 캐나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민과 세금 문제, 공식 직함에서도 일반 캐나다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캐나다 이민국은 “시민권법에는 영국 왕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려면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자 자격으로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해리 왕자 부부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방문자 자격으로 머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쥘스탱 트뤼도 총리는 최근 해리 왕자 부부의 경호

비용 일부를 캐나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00만 파운드(약 130만 달러)에 달하는 왕자 부부의 경호비용 중 절반인 50만 파운드를 캐나다 정부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영연방 가운데 하나로 영국 왕족이 캐나다에 머무를 때는 캐나다 연방경찰의 경호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영국 왕실에서 물러나기로 한 해리 왕자 부부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경호할 의무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뤼도 총리가 이미 왕자 가족의 경호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안전을 장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SNS 등에는 “캐나다가 왜 영국인인 해리 왕자 부부를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빌 모르노 캐나다재무장관은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일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